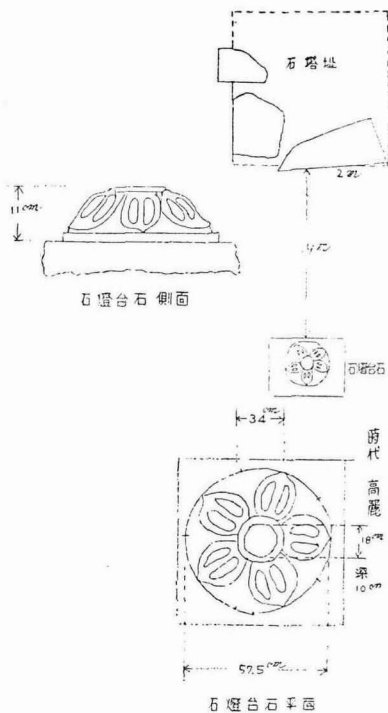


圖一 修德寺南方址遺物



年十月頃發見되어 公州師大附設 百濟文化研究所(代表 金永敦學長 參加者 金永培 李永樂)에서 調査되었다. 이 兩墳은 日政時 盜掘되었다는 바 年代는 百濟로 推定된다. 이같은 前例는 公州 錦町第一號墳(昭和二古蹟報告書 第二册 二十四頁)에서 본 바 있었으나 現在는 滅失되었는데 이 新例는 上墳은 完形이며 下墳은 入口 一部破壞되었으며 모두 副葬品은 없었다. (參照: 公州師範大學報 七十四號一九六六、一一、一〇)

◎ 新羅五岳調查團 出發

新羅五岳調查團에서는 十二月二日 智理山地區 第二次 調査를 떠났다. 서울에서 鄭永鎬, 文甲洙 兩氏와 慶北大 尹容鎮氏 釜山에서 丁仲煥, 兩氏가 參加할 것이며 九日에는 晉州에서 金岸基 黃壽永 金英夏 秦弘燮 諸氏가 合勢할 것이다.

◎ 天原郡 木川面 東里 미륵골佛像 調査

國立博物館 調査班(崔淳雨、鄭良謨、金義中)은 十二月二日과 三日의 兩日間 天原郡 木川面 東里 미륵골 龍華寺 草庵 溫突房 가운데 下半身이 묻혀 있는 石佛 立像을 發掘調査했다. 이 石佛立像은 佛身高三·八五m의 如來形이었으며 兩足은 別石으로 彫刻해서 足座盤石위 제자리에 꽂혀 있었다. 保存狀態는 거의 完美하다.

◎ 三角山 三川寺 大智國師塔碑殿址 調査

國立博物館 調査班(崔淳雨、鄭良謨、李准求、金義中)은 十一月二十四일부터 二十九日까지 北漢山 三川이골(高陽郡 神道面 津寬內里)에 있는 三川寺 大智國師塔碑殿址를 整理調査했다. 一九六四年一月 三次에 걸쳐서 同碑銘片多數를 收拾한 바 있는 同調査班은 이번 調査에서 大智國師浮屠塔基壇으로 보여지는 方形基壇遺址를 發見해서 整理했으며 銅製舍利盆一個와 碑銘片若干도 收拾되었다.

◎ 慶南地方先史遺蹟 調査

國立博物館 考古課에서는 지난 十一月十八일부터 二十八日까지 慶南 梁山·東萊·金海·昌原·固城地方의 貝塚 踏査를 實施하였으며 六七年度 調査豫定地를 選定하였다. 또 昌原郡 鎮田面 谷安里 部落 앞의 畚中에 있는 支石墓를 緊急 調査하였다. 支石墓는 南方式支石墓로 地下遺構는 多幸하게도 完全히 遺存하여 粘板岩 蓋石下에 自然塊石으로 쌓을린 小石室이 있어 그 속에서 紅陶小壺가 出土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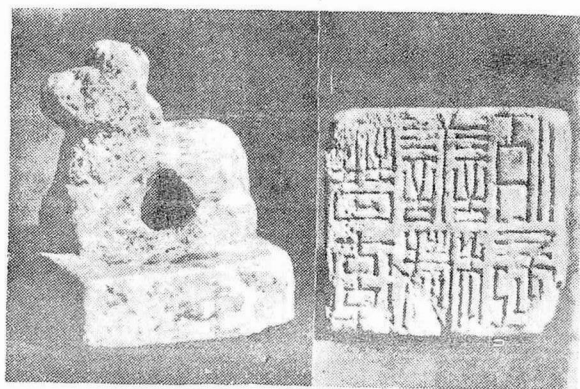
晉率善穢伯長 銅印

第八卷 第一號 通卷七十八號

梅原末治

이 銅印의 新出土를 들은 것은 今年(一九六六年) 二月의 일이다. 半島에서의 上古 歷史上 重要한 遺品에 대하여서는 어찌된 일인지 그 것은 學術發掘에 의한 出土가 아닌 까닭도 있으려니와 아직 거의 알려지지 아닌 듯하므로 이곳에 그 후 印의 實際 其他 알 수 있었던 것을 記하여 本誌同人이 그 出土地에 대하여 檢討함에 資하고자 한다.

그런데 銅印 그 자체는 아직 實見할 機會를 얻지 못하였으나 插圖의 寫眞에서 보는 바와 같이 틀림없는 當代中國에서의 官印이다. 作은 全高 二·五cm 一邊長約二·三cm의 所謂 獸鈕로서 印面은 型과 같이 「晉率善穢伯長」이란 三行 二字씩 隸體 六字의 陰文이다.



있으며 그 實物도 적지 않게 現存하고 있는 바이다. 現在 此種 當代的 官印을 多數 收藏하고 있는 京都 藤井有隣館——이것은 원래 黃縣丁氏가 蒐集한 例에 있어서 印章의 가장이름난 蒐儲——에 있다. 右의 晋代의 六例를 들어 比較하면 그 印面의 法量은 말할 것도 없고 鈕形도 同一한데 그중의 하나인 「晉 裴善胡伯長」印같은 것은 그 글자의 配置까지도 전혀 같은 사실을 認定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 點에서 본다면 穢下의 一見 狍이라고 보기 쉬운 文字도 물론 伯으로서 此印이 穢伯長에게 주어진 사실은 틀림없다고 하겠다.

寫眞에서도 明白한 바와 같이 右의 印面은 現在 상당히 磨滅되고 또 緣部의 缺落이 눈에 띄이며 獸鈕도 또한 상당히 손자리가 있어서 鍔化된 銅色으로 推定케 함이 있다. 따라서 土中할 때까지는 使用되었던 사실을 그들로부터 推定케 할 수 있다. 이 銅印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中國에서 漢以來 四隣의 諸國의 長에게 送所 謂官印의 晋代의 것으로서 이미 同様の 銅印이 數多한 中國의 古印譜에 著錄된

이 歷史的인 事實을 內藏하는 銅印의 出土地에 대하여서는 當初 다만 慶北地區라고만 傳하였는데 爾後 三十年來 舊知인 金東鉉氏가 筆者 要請에 따라서 熱心히 探求를 계속한 結果 最近 그것이 慶北 迎日郡 新光面 馬助里임이 거의 確認되었으며 發見者는 同村의 權五述氏라는 所 報조차 없었다. 또 銅印과 더불어 空色の 硝子玉 十餘個가 같이 出土되었다는 知見까지 있어서 그로부터 出土遺跡이 古墓로 推定되기도 한다. 右의 出土地와 그 遺跡의 狀況이야말로 銅印이 보이는 바 그것이 紀元 三世紀의 後半부터 四世紀의 初頭에서 中國 晋으로부터 穢伯에게 주어진 重要한 事實에 대하여 意味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다시금 그 追求를 同學人士에게 期待하는 바이다.

河東 岳陽의 石造如來立像

朴 敬 源

昨年十一月末頃に 河東郡 岳陽面 亭西里 彌勒嶺에 있는 石佛을 調査하였으므로 이에 그 대강을 紹介한다.

一、位 置

岳陽面事務所가 있는 亭西里에서 西北으로 約 3km 가량 올라간 山中腹에 降仙庵이란 작은 庵子가 있는데 이 庵子는 四十餘年前에 本石佛을 奉安하기 위하여 創建한 것이고 石佛은 이 庵子 近處에서 옮겨 온 것이다.

石佛의 原位置에는 아무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하며 또 이 곳을 訪問한 날 庵子에는 사람이 없어서 原位置를 물어 보지도 못하였으나 現 庵子에서 數百m 程度の 가까운 距離에 있었다고 地方人士들이 말하고 있다.

이 곳에서 標高 八〇〇m의 재 하나 남은 곳에 高麗時代의 各種 遺物이 많이 出土된 元崗寺址(河東郡 花開面 富春里)가 있고 거기서 江을 따라